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마태복음 강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9)

Hallowed be your name (Matt. 6:9)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با 아버지심을 가르쳐 주시며 이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세 가지의 기도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esus taught that the subject of prayer is our Father in Heaven and prayed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We know that these three contents of prayer are all about God, for God, and by God.

1. 아버지의 이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알려주는 엘로힘, 야훼, 또는 아도나이 등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어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시 33:21).

1. The name of Father

We can see in the Bible, the name Father is revealed in three different names: Elohim that tells us the existence and essence, Yahweh, and Adonaim. “In him our hearts rejoice, for we trust his holy name” (Psalms 33:21).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개의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며,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으므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Just as we trust God, we trust His name. God and His name are not a different existence but one of the same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e name of God is God's essence and quality. Since we were saved by His name and received His grace and blessing, we must live for the glory of His name.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십계명 중에 제 3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In the Bible it gives a stern warning on the disgraceful work that gives shame on the name of God, and in the Ten Commandments, the third,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vain.

2.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70여 가지로 나오는데 이 모든 이름의 공통점은 거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그 분은 우주만물과 모든 인간과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며 영광과 힘과 권세와 위엄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2. Father, hallowed be your name

The name of Father that means holy appears seventy times throughout the Bible. God is unique and unrivaled. He is distinguished from all the things in the universe and the entire human race. And He is infinite, boundless, and eternal with the glory, power, authority, and dignity.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라고 외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In the Revelation chapter four, the appearance of worship in heaven is described beautifully. By saying that holy God is our eternal God, the angels cry,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and is to come.” God who is holy and eternal is also our unique target in worship.

3.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3. The way we make God holy

The name of God is hallowed through our worship given by us and our daily lives. As we are God's people and His children, our word and behavior results from the nam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에 그 결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As it is written, “God's name is blasphemed among the Gentiles because of you” (Rom. 2:24). If we, as Christians, are traduced and blamed by someone in the world, it must be the name of God that is blasphemed. However, on the contrary to this,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men,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praise your father in heaven” (Matt. 5:16), God, the name of Father must be hallowed through all of our good words and deeds.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롬 2:24), 만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방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우리의 모든 착한 언행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By shining the light of Jesus to the world,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the wonderful tool of the name of which God will be hallow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2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마친다

청년1·2부: 15(수)~17(금) 아가페타운 / 신혼가정부 15일(수) 서울교회
장로 수련회: 17일(금) / 소망부 수련회: 17일(금) 아가페타운

지난 7월 13일 영어예배부를 시작으로 그간 진행되었던 2012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오는 8월 17일 장로 수련회와 소망부 수련회로 끝을 맺는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간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

2012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

오리엔테이션: 오늘 오후 4시, 본당 / 장학금 수여: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이영기 장로)는 2012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대상자는 오후 4시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 참석 시 장학금을 받을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수여식에 단정한

복장으로 참석하기 바란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44명으로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부디 말씀 안에 자라나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브리스길라 장학생(신학생) - 5명
김종일, 허승일, 박다형, 최인애, 이신우

<디아스포라부>-7명
이현서, 이영화, 양리인, 홍정원, 박춘희, 이영희, 권영숙

2. 일반 장학생(대학생)
<송암 장학생>-26명
천예은, 이한나, 황나리, 박수진, 김재욱, 김연진, 임아름, 최경미, 이신영, 이한호, 김준석, 마건영, 임혜준, 박소혜, 유윤지, 이누리, 김문범, 한성애, 이혜진, 유은수, 주소영, 임주현, 정상준, 조인주, 박연정, 정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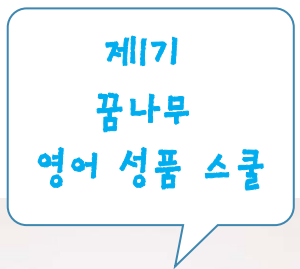
<고등부> - 1명 김태현
<교역자·선교사자녀>-2명: 정에스더, 정해린
<호산나전문대학>-3명 최미리, 노성준, 문병훈

2012 성경 암송 대회

예선-10.14(주) 교회학교별 / 본선- 10.19(금) 오후 7:00, 602호
암송범위: 빌립보서 1-4장(전장)

2012 성경암송대회가 오는 10월에 열린다. 후7시 602호에서 본선을 갖는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암송범위는 빌립보서 1-4장(전장)이며 10월14일 를 기다린다.
(주) 각 교회학교별로 예선을 치르고 10월19일(금) 오

9월 1일(토)에 개강하는 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 제 1기 어린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대상: 7세 - 초등학생 (선착순 30명 / 모집 후 연령별 수준별 분반)
- 수업기간: 총 32주간 (가을 학기: 9-12월 16주 / 봄 학기: 3-6월 16주)
- 일 시: 학기 중 매주 토요일 오전 9:30-12:30 (교회에서 브런치 제공)
- 장 소: 서울교회 7층 701호
- 수업료: 무료 (단, 교재비는 개인 부담)
- 접수방법: 1층 사무국에 비치된 지원서 양식에 기재 후 제출
- 문의사항: 지도목사 김안성 010.8829.7818
- 교육내용:

1. 꿈나무 성품 교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어린이!
경청, 긍정적인 태도, 인내, 절제, 창의성, 정직 등 12가지 좋은 성품의 정의를 익히고 1학기에 2개 성품씩 1년에 4개 성품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배우고 연습합니다.
(교재: 좋은나무성품학교 출간 step 3 시리즈)
2. 꿈나무 정철영어성경공부 교실: 복음을 영어로 자신있게 말하는 어린이!
복음을 영어로 외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마음에 새길 수 있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교재: 정철영어연구소 출간 Who made the world? & Amazing True Stories)
3. 야외 놀이 활동: 함께 뛰놀며 즐거운 어린이!
수업의 일환인 야외 놀이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뛰놀며 크게 웃을 수 있고, 배려하며 협동하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59]

(문 56) 단 지파가 최종 정착지로 삼은 곳은 어디였는지요?

답) 민 26:42의 기록에 의하면 두 번째 인구조사 시 단 지파 자손 중 전쟁에 나갈만한 자의 수가 64,4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다의 서방 경계선과 지중해 해변 사이에 있는 영토가 여호수아에 의해 배분되었는데(수 19:40-46), 이 지역은 매우 기름지고 강수량이 높아서 이들 지파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만큼 풍성한 곡식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로 블레셋과 경쟁에서 군사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단 지파 자손 중 삼손과 같은 민족적 영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정복이후 수 세대 내에 가나안과 블레셋의 강압에 못 이겨 이민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성장하자 젊은이들 중에 원정군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12지파에게 허락한 땅 이외의 영토를 점령하려는 모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이주 시기가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단 지파 중 600명만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삿18장).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이들은 그들이 거주할 곳을 찾아 베니기아(오늘날의 레바논)까지 두루 다니다가 마침내 변영과 평화의 도시 라이스를 선택했습니다(삿 18:7). 유다의 기랴여아림을 거쳐 에브라임 산지까지 군대가 진주하고 무리가 그곳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라이스에 도착해 그 곳을 점령하고 그 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습니다(삿 18:29). 이 단은 12지파의 최북단에 위치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를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조(931 B.C)때부터 10지파가 분열되어 여로보암 1세를 왕으로 복왕국을 세우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여 벰엘과 단에 각각 두고 이들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왕상 12:25-29).

이들 단 지파가 여호수아에 의해 처음 분배 받은 가나안의 중앙고원의 서남방, 중앙고원의 해변 중간의 구릉 지대인 필리스타아에 살던 사람보다 이곳 단에는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전체 지파 중 이주한 이가 부분적이었고 시돈과 두로 부근에 있는 라이스를 점령한 소규모의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주 계속)

8.15 광복절에 즈음하여

크리스찬의 애국심



기대보다 좋은 성적으로 국민들이 즐겁게 해 준 런던 올림픽도 이제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드컵과 올림픽, 그리고 한일전 축구경기는 국민들의 순도 높은 애국심을 이끌어내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마음으로 선수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시상대의 태극기와 이국땅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에 다 같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하지만 올림픽과 함께 17일 동안 지속되는 고품질 애국심은 당분간은 보기 힘들 것입니다.

올해에는 연말에 국가의 대사(大事),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다함께 '대~한민국'을 외쳤던 마음을 네 후보, 내 당, 우리 지역으로 갈라 놓습니다.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목 놓아 외치던 젊은이들은 곧바로 '정치 무관심층'이 되어 취직에, 연애에, 육아에 매달립니다. 올림픽 기간, 짊어졌던 고순도 애국심은 다시 원위치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애국심은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 선배님들의 애국심은 자랑할 만합니다. 3.1운동을 이끌었던 33인의 민족대표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로 많이 인용됩니다. 당시 전체인구 중 기독교인의 비율이 2%가 안 넘었던 것을 보면 분명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하지만,

“
크리스찬의 애국은
관심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해야...

관심에서 그치지 말고
기도로 이를 도와야...

”

20%가 크리스찬이라는 지금, 국가에 대한 무관심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옮겨 오고 있고, 이것은 크리스찬과 비(非) 크리스찬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의 애국은 관심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관심에서 그치지 말고, 기도으로 이를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에서 더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관심은 쓸데없는 정치논쟁이 되고 맙니다.

광복절을 맞아 크리스찬의 애국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래에 장로 대통령이 두 분이나 계셨지만, 크리스찬 대통령이어서 뭔가 달랐다는 평은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만 잘 뽑는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요일2:17)'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민주시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主權)을 인정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권세인 국가를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민에게 전도 - 인도네시아단기선교팀 중간보고

선교의 증인

이영재 집사(인도네시아 단기선교 단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인니 단기선교팀은 험한 경로를 거쳐 목적지인 말랑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사역 첫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문건 목사님의 인도 가운데 새벽기도로 하루를 열었으며, 첫 사역지인 YMI교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대학 교육팀과 이·미용팀은 각각 워십댄스, 티셔츠 페인팅 등과 컷트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너무나도 해맑았던 아이들 중 한 아이가 손가락으로 십자가 페

인팅을 가리키며 한국어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십자가'라고 말했다니 아이가 따라하며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참동안 마음이 뭉클하였습니다. 첫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도착 3일째에는 두 번째 사역지인 Demo Wanita유치원과 Demo 마을회관에서 여러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후생팀에서는 현지 주부들에게 잡채 요리 강습을 선보였고, 청년 교육팀은 준비한 인형극과 워십댄스를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였으며, 이·미용팀은 아이들 및 어른들의 컷트를 담당하는 등 모든 팀원들이 맡은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미용 마지막 사역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는 여아들의 머리따기를 도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 안에서 더욱 만족된 사역을 마쳤습니다.

넷째날은 말랑시 인도네시아 현지인 교회에 참석하여 선교지에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으며, 대학팀은 영유아들을 위해 예배시간 중 인형극 사역을 마쳤습니다. 색다른 경험이었으며, 이슬람 문화권인 인도네시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으며, 선교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같이 설 수 있었다는 것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낮



은 자세로 그들을 섬겨야겠다는 마음 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한국어로 주일 예배를 다시 올렸으며, 사역 점검으로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여섯째날 첫 의료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현지 보건당국의 저지로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다행히 2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역기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온전히 인도네시아 땅과 사람들에 깊이 뿌리내림과 동시에 전 세계의 복음화의 머릿돌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봅니다. 더불어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동안 어렵게 사역을 진행해주신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다음 기회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을 때는 인니의 온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청년1부 수련회 초대이글

부 르 심

손병석 집사
(청년1부 부장)

30대들(1972-1982년생)을 위한 소통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금번 청년1부 여름 수련회는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8월 15일(수)에서 17(금)일 (2박3일)동안 아가페타운에서 박노철 담임목사님과 박진아 지도목사님을 강사로 수련회를 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와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과 Vision을 재점검하고 다시 깨우침을 얻어서 주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기회가 되도록 모든 청년1부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첫날은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견학하여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시작이 됩니다. 1885년 4월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첫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 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엮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청년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다부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과 소금

김나리 성도 (에바다부)

다짐을 했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 7월31~8월1일 (1박 2일) 동안 아가페타운에서 가졌던 에바다부 수련회는 그 어느 해보다도 뜻 깊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어떤 일들을 당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약속과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하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서 에바다부 형제 자매들은 가족같이 화목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체험하며 은혜의 강물에 온 몸을 적셨습니다. 수련회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게 말씀을 주신 임규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도 우리 농아인들이 믿음의 정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동정

- 이종원 원로목사는 8월14일(화) 한국장로교 한(1)교단 단체제 제2차 헌법공청회를 갖는다.
- 박노철 담임목사는 지난 7월 25일 출국하여 목회학 박사 과정 논문정리와 미주 소망교회, 영락교회 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지난 8월 9일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였다.
- 이갑진 장로, 박우주 권사 8.15~20 동아시아 기독교인 대회 참가차 대만 (카오슝) 출장, 8.21~25 몽골 기독교인 15주년 감사 집회 강사, 몽골 (울란바타르) 출장
- 주간식당봉사: 마리아전도회(8.12) 한나전도회(8.19)
- 금주의 식사: 류기찬 집사 윤용미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오세광 목사(청년2부 지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주제로 이번 청년2부(83-87)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Knowing God” 아마 평생을 두고라도 우리가 씌름해야 할 숙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온전히 계시해 주시기

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많은 오해를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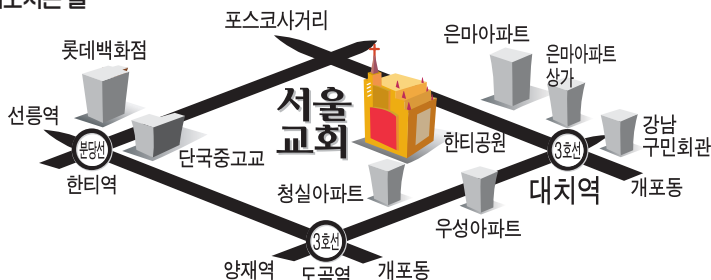
그래서 이번 8월 15일(수)부터 17일(금)일까지 아가페 타운에서 열리는 청년2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진정으로 거듭난다는 것과 수많은 세속화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수많은 세상의 방법들을 뒤로한 채 오직 하나 “하나님을 바로 알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되도록 영적인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단기선교를 통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뿌린 복음과 사랑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2. 이번 주에 마무리되는 2012년도 여름수련회들을 통해 부서의 하나됨과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3. 런던 올림픽의 선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며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더욱 애국하는 서울교회가 되도록